

Jesus  
Olive Tree

예수, 감람나무,  
그리고 **여케언**

저자 윤상학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 예수, 감람나무, 그리고 예언

발행일 2017년 9월 10일

지은이 윤상학

발행처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홈페이지 <http://ieden.kr>

문의할 곳 [info@ieden.kr](mailto:info@ieden.kr)

Copyright 2017.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출처를 밝히는 조건 하에서 자유 배포를 허용함.

SBN 979-11-86212-12-7 05230

비매품

성경 구절 인용은 개역한글판 (1961)을 사용하였음.

## 머리글

성경의 중요성 중 하나는 예언에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시행하시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망시키는데 필요한 하늘 군대를 만들고 계신다. 하늘 군병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는 2천 년 전에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모진 고난을 겪으셨다. 예수님은 이 제사를 통해 산 제물이 되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소멸할 생명수를 만드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만 지시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으로 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2천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오지 못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대가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으셨다.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보실 수 없었던 책이다. 예수님은 그 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셨다.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때는 주후 95년경이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도 순교하였고, 12사도도 대부분 순교하였다. 기독교의 기반을 닦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상황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이다.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계실 때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 복음서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계시록은 수많은 비밀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로부터 거의 2천 년이 지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시록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그 애매함으로 인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비유로 보여주신 것은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 내용을 이를 존재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다. 그 존

재가 등장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감추었던 비밀을 알려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다. 그 일은 바로 남은 하늘 군병을 배출 하여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 일을 해야 할 존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두 감람나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나무로 쓰이기 위해 이기는 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에게 일곱 가지 언약을 주셨다.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감람나무를 예언하실 때 알려주셨던 것과 같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셨고, 하나님의 책을 보신 후에야 그 일을 알게 되신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에 예수님과 감람나무에 대해 남긴 예언을 다룬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영의 세계에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손을 잡고 직접 예언을 쓰셨다.

이 소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 목차

<b>1부. 배경</b>	<b>11</b>
1. 예언은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12
2. 하나님의 섭리	18
<b>2부. 예수 예언</b>	<b>25</b>
3. 예수님께서서 자신에 대해 직접 예언한 구절들	26
3.1 시편 2. 열방의 유업	26
3.2 시편 16.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	29
3.3 시편 22. 십자가 고난	31
3.4 시편 31. 죽음과 부활	32
3.5 시편 40. 율법 폐지와 구원 선포	33
3.6 시편 41. 친구의 배반과 부활	34
3.7 시편 69. 수치와 고난	36
3.8 시편 109. 대적하는 자를 위한 기도	37
3.9 시편 116. 사망에서 건지심	38
3.10 시편 118. 부활과 머릿돌	39
3.11 시편 139. 탄생과 부활, 승천	39
3.12 잠 1:20-33 지혜, 신을 부여줌	40
3.13 잠 8:1-9:12 창조와 생명수	42
3.14 사 12:1-6 구원의 우물 물	44
3.15 사 21:6-10 타작한 것	45

3.16 사 48:1-19 여호와와의 신	46
3.17 사 49:1-6 여호와와의 종	47
3.18 사 50:4-11 학자의 혀와 고난	48
3.19 사 60:1-9 새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는 자	50
3.20 사 61:1-3 기름 부음 받음	52
3.21 사 61:4-9 여호와와의 제사장	53
3.22 사 61:10-62:12 신랑과 신부	55
3.23 사 63:1-6 진노의 포도즙 틀	56
3.24 속 11:1-17 언약 폐지와 온 30냥	57
3.25 속 12:10-13:1 생명수 샘물	58
<b>4.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b>	<b>60</b>
4.1 창 22:17-18 복의 근원	60
4.2 창 49:10 실로가 오심	61
4.3 민 24:17 한 별	62
4.4 삼상 2:10 메시아	63
4.5 삼상 2:35 메시아	64
4.6 시 8:4 인자	64
4.7 시 34:20 뼈를 보호하심	65
4.8 시 45:7 메시아	66
4.9 시 68:18 승천과 구원	66
4.10 시 72:11 만왕의 왕	68
4.11 시 80:17 주의 우편	68
4.12 시 91:11-12 보호하심	69
4.13 시편 110. 우편 보좌와 멜기세덱의 제사장	70
4.14 사 7:10-16 처녀에게 나심	71

4.15 사 9:1-2 갈릴리	72
4.16 사 9:6-7 기묘와 다윗의 위	73
4.17 사 11:1-5 이새의 줄기	74
4.18 사 11:10-11:16 만민의 기호	75
4.19 사 13:2-3 자산 위의 기호	75
4.20 사 28:16 기초석	75
4.21 사 32:1-4. 의의 왕	76
4.22 사 42:1-7 이방의 빛	76
4.23 사 49:7-12 멸시를 당하는 자	77
4.24 사 49:22-23 여호와와의 기호	78
4.25 사 52:13-53:12 고난과 죄의 대속	79
4.26 사 55:1-5 만민의 증거	79
4.27 사 58:12 수보하는 자	80
4.28 렘 23:5 의의 왕	81
4.29 렘 31:15 통곡	81
4.30 렘 33:15 다윗의 가지	82
4.31 단 7:9-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83
4.32 단 8:25 만왕의 왕	85
4.33 단 9:24 지극히 거룩한 자	86
4.34 단 12:6-7 강물 위에 있는 자	87
4.35 호 11:1 하나님의 아들	89
4.36 암 8:9 땅이 캄캄함	90
4.37 미 5:2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91
4.38 속 3:8 순	91
4.39 속 3:9 일곱 눈을 가진 돌	92
4.40 속 6:12-14 평화의 의논	96



4.41 속 9:9 나귀	97
5. 예수님과 관련된 상징적 사건들	98
5.1 창 17:10 할례	98
5.2 출 30:10 피로 속죄함	99
5.3 창 22:2 이삭	99
5.4 출 12:13 유월절 어린 양	99
5.5 출 12:46 뼈가 꺾이지 않음	100
5.6 레 23:10-11 첫 이삭	100
5.7 민 21:9 놋뱀	101
5.8 단 2:34-35 돌	102
<b>3부. 감람나무 예언</b>	<b>104</b>
6.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	105
6.1 스가랴서의 예언	105
6.2 계시록의 예언	106
7. 감람나무와 관련된 예언	112
7.1 야곱	112
7.2 모세	115
7.3 사무엘서의 제사장	117
7.4 엘리야	117
7.5 스가랴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118
7.6 스가랴서의 총독 스룹바벨	121
7.7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	126
7.8 다니엘서의 강 좌우의 두 사람	128

7.9 계시록의 이기는 자	131
7.10 계시록의 인 치는 자	143
7.11 계시록의 인자 같은 이	145
8. 결론	147

# 1부. 배경



1. 예언은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2. 하나님의 섭리

## 1. 예언은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성경에는 참 애매한 내용이 많다. 그래서 해석도 여러 가지고, 그로 인해 교파도 많다. 성경은 왜 이렇게 애매한가?

하나님께서서는 마귀를 멸망시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은 마귀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계 20:9).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고 하셨다 (사 43:7).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그것은 마귀를 멸망시킴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겔 38:16, 계 20:8).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영광을 이루어준 사람들의 수고를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계 22:12 참조).

하나님은 왜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

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 8:44)

마귀는 아담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고 (창 3:23),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눅 4:5-7). 그는 가인을 범죄케 하여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창 4:4-7),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만들었고 (창 4:8), 인류를 죄에 빠뜨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었다 (창 6:5-7).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는 마귀를 멸망시킴으로써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 (신 32:4, 사 61:8).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이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은 도덕 교과서로 전락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으로 여기고, 모든 가르침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세마포로 옷 입히시고 그들을 하늘 군병으로 삼아서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계 19:8, 14).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다 (마 7:21).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 된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끝 날에 후회하게 된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2-23)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말로 되는 일인가? 이런 일은 신의 능력을 받아야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그 권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신기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마귀 멸망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위해서 이 방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가?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이런 대규모의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애를 쓰시며 기다리셨을까? 현재 육을 입고 마귀 지배

를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는 사람도 현재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들은 마귀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 그런데 마귀도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아무나 알도록 알려주실 수 없으셨다. 그래서 많은 예언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선지자조차도 자신이 본 이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다 (단 12:8 참조).

그렇다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가르쳐주셨을까? 그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므로 비밀로 감추어진 그 일을 해야 할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밖에 없다. 그때 그 비밀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이룰 존재로 네 분이 예언되어 있다. 그 중 두 분은 2천 년 전에 오신 세레 요한과 예수님이다. 세레 요한은 예수님의 길 예비자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나머지 두 분은 두 감람나무다 (슥 4:11-14, 계 11:4). 그 중 첫 감람나무는 하늘 군병을 만들기 위해 씨를 뿌리는 자이고, 둘

째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거두는 자다. 당연히 주인공은 둘째 감람나무다. 감람나무와 관련된 예언들은 대부분 둘째 감람나무에게 해당한다.

이 책의 2부에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을 다룬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1.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예언
2. 예수님에 대한 예언
3. 예수님과 관련된 상징적 사건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구약시대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예언을 남기셨다는 것은 인간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이미 육을 갖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3부에서는 감람나무와 관련된 예언들을 살펴볼 것이다. 감람나무라는 이름으로 직접 예언된 것은 스가랴서와 계시록 밖에 없다. 그 외에는 마귀에게 가리시기 위해 간접적으로 예언된 것들이 있고, 또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통해 알려주신 감람나무의 역할들이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예수님과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봄으



로써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로써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들임을 알리는 것이다.

## 2.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 및 감람나무와 관련된 예언을 살펴보기 전에, 그 예언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표는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일은 성도로 이루어진 하늘 군대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군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목표이다. 그 일을 하는 핵심 인물이 예수님과 감람나무다. 마귀가 멸망 받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천국 백성이 결정된다. 그 후에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목표가 마귀 멸망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이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10)

그 다음에 심판 장면이 나온다 (11-15절). 그러므로 마귀를 멸망시켜야 심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 잡히는가? 바로 전쟁을 통해서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시대의 순교자들로 이루어진 성도들이다.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계 20:7-9)

마귀 군대와 싸우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이다. 이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는 자들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계 19:7-8)

어린양의 아내가 되는 자들은 옳은 행실로 인해 세마포를 입을 자격을 갖게 되었다.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하늘 군병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마귀와의 전쟁에 나선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 19:14)

또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으로도 불린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2)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9-10)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 21:27)

간단히 정리하면, 선지자들과 순교자들 중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이들은 옳은 행실로

인해 세마포를 입게 되며, 하늘 군병이 되어 어린 양을 따라 마귀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된다.

하늘 군대는 144,000명으로 이루어진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찬 이후의 장면이 다음에 나온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1)

144,000에 속하는 자들은 그 이마에 이름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신약시대 인물을 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하늘 군대는 한 시대가 아니고, 신구약시대에 걸쳐 배출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통해 이 군대를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시시대를 거쳐 인지가 발달한 인류와 청동기 시대에 교류를 시작하신 것이 6천 년 전이며<sup>(1)</sup>,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로 한 민족을 만들어, 하늘 군병을 배출할 계획을 구체화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

(1) 6천 년은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일을 하신 기간을 의미한다. 이미 오래 전에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석기시대를 거쳐 청동기 시대가 되어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할 자들을 택하셨다.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는 전쟁을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을 만들게 하시려는 것이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숭배와 각종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레 18장 참조). 사실 죄가 없는 족속은 없다. 하나님께서 한 족속을 택하여 마귀 군대의 상징으로 삼으신 것은 장차 있을 마귀와의 전쟁을 알려주시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전쟁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은 죄와의 전쟁이다 (창 15:16).

예수님의 희생은 왜 필요했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더러워진 아담을 계속 에덴동산에 두실 수가 없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선, 곧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악, 곧 마귀와도 가까워진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아담은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귀와 싸울 군병으로 쓰시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죄를 가진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요일 3:8). 그래서 죄를 가진 자는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이 될 수 없

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희생시켜 그 죄를 소멸시킬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셨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졌다 (속 13:1).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당신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생수를 주시고, 그로 인해 하늘 군병의 수가 차면 그들을 데리러 바로 오실 것으로 아셨다 (마 24:31). 그런데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에 감람나무를 세워,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맡겨주시고, 그를 통해 하늘 군병을 배출하여 하늘 군대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감람나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계 11:3-5), 예수님은, 누군가를 감람나무로 세우시기 위해, 믿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가 나타날 것을 바라셨다 (계 2:7 외 6곳).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겨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나눠주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계 21:6-7). 자세한 것은 3부 감람나무 예언에서 다룬다.

마귀가 멸망당한 뒤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 권세를 받아서, 마귀에게 끌려간 모든 영들을 데려와 심판을 하게 된다 (계 20:4).

그 결과 천국 백성이 배출되고, 하늘 군병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된다 (계 22:5). 왕이 될 군병들이 144,000명이므로 새 땅에는 144,000개의 왕국이 형성된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다.



## 2부. 예수 예언



3. 예수님께서서 자신에 대해 직접 예언한 구절들
4.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5. 예수님과 관련된 상징적 사건들

### 3.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직접 예언한 구절들

구약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많다. 그 중 일부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예언한 것들이다. 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 3.1 시편 2. 열방의 유업

시편 2편은 예수님에 의해 쓰였다. 이 시를 기록한 필자가 누구 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필자는 다만 손을 빌려드린 것이고, 그 글을 쓴 존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예언을 남기셨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가 예수님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와 같은 내용이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 2:26-27)

요한 계시록은 95년경에 쓰였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셨다 (계 1:11).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60여 년 뒤에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

위 구절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중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신 뒤, “이기는 자”에게 위의 약속을 주셨다. 이 내용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어느 한 교회가 아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계 2:29).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다.<sup>(1)</sup> 그런데 예수님도 그의 아버지, 곧 여호와로부터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하셨다. 그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이다. 시편 내용을 보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1) 이긴자는 둘이다. 이긴자는 감람나무의 사명을 받으며, 감람나무는 둘로 예정되어 있다 (계 11:4). 이긴자들 중에 일을 완수하는 자는 두 번째 존재다. 그러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자는 제2감람나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 2:7-9)

이 시에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셨고,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항아리 만드는 사람이 잘못 구워진 항아리를 철장으로 깨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와 같이, 열방을 쉽게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존재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에서 보여준 계시록의 내용이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시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이기는 자가 사명을 완수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로부터 시편 2편이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천 년 전에 쓰였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 영의 세계에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5)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다. 뒤에 3.12에서 설명하겠지만, 잠언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으며 창조에 동참하셨음을 밝히고 있다.

### 3.2 시편 16.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

이 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또 부활 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나라를 다스릴 권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씩

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16:8-11)

이 시의 기자는 3천 년 전의 다윗이나, 실제 저자는 예수님이다. 그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으며 썩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자”로 예언되어 있다 (단 9:24). 또한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것과 하늘나라를 다스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 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110:1)

예수님께서 이 시를 직접 인용하심으로써 (마 22:44), 다윗에게 “주”가 되는 존재가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셨다. 이 시에서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네 생물, 곧 네 천사장과 24장로의 경배를 받으셨다 (계 5:8).

### 3.3 시편 22. 십자가 고난

이 시편도 다윗이 기록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 수 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시의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마 27:4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알았다 (47절). 첫 구절 “내 하나님이며”가 히브리어로 “엘리”였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이 시를 읊으신 것이다.

이 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 대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 시가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구절은 18절이다.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시 22:18)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로마 군병들이 그의 옷을 나눠 갖고 또 그의 속옷을 제비 뽑았다 (요 19:23-24).

예수님은 이 시에서, 당신이 백성의 조롱거리가 될 것을 밝히고 있다 (6절).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며 비웃을 것이라고

(2) 예수님은 아람어로 “엘로이”라고 하셨으나, 마태는 히브리어인 “엘리”로 적었다. 마가복음은 엘로이로 되어 있다 (막 15:34). 그러나 한글개역이나 한글개정판에서는 마가복음도 “엘리”로 번역하였다.

말하고 있다 (7-8절).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다 (마 27:43).

또 개들이 에워싸서 수족을 찢을 것을 예언하셨다 (16절). 이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다 (2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 손아귀에서 그를 구원하여 부활하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

### 3.4 시편 31. 죽음과 부활

이 시편도 다윗이 기록하였지만, 저자는 예수님이시다. 5절은 다음과 같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하고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눅 23:46).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 3.5 시편 40. 율법 폐지와 구원 선포

이 시도 다윗이 기록했지만, 저자는 예수님이시다. 6절에서 예수님은,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고 밝히고 계신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쓴 것이라면 다윗이 당대에 제사를 폐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예수님 이후에 할례와 모세 율법이 폐해졌으므로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눅 16:16).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사도들은 이방 전도와 할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 사도로 택하시고 할례를 폐하게 하셨다 (행 9:15). 사도 바울은 할례 폐지로 인해 일평생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다 (갈 5:11).

할례도, 구약시대 제사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였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할례도 필요 없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다.

또한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하고 노래하고 있다.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뜻한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그에 대해 예언된 성경 구절이 있는가? 없다. 후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경

에 예언된 존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두 감람나무뿐이다. 그 중에서도 육을 입기 전에 성경에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존재는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은 9절에서,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는 복음을 말한다.

### 3.6 시편 41. 친구의 배반과 부활

이 시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손을 빌려 쓰신 것이다. 9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 떡을 받아먹고 예수님을 팔러 나간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다 (요 13:26-30).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그는 12사도 중 돈궤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을 훔쳐가는 자였다 (요 12:6).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배반할 자로 정하셨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일을 매우 애석해 하셨다 (마 26:24).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지 않으시니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고 (눅 22:3),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 (마 26:15). 예수님이 붙잡힌 이후에 마귀

가 그에게서 나갔고, 그는 그 일을 후회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일을 돌이키려고 하였다(마 27:3). 그러나 대제사장은 유다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가롯 유다는 돈을 그 앞에 던져놓고 나가서 자살하였다(마 27:5).

예수님은 이 시 12절에서,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나님께 올라갈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간 일이 없다(요 3:13).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요일 3:8).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에게 속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르는 것이다(계 6:8). 이것은 죽은 후에 음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음부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다. 그러므로 마귀를 먼저 멸망시켜야 마귀에게 끌려간 영들을 음부에서 나오게 하여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계 20:13).

12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음부로 끌려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셨고, 이것을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한다(고전 15:20). 예수님처럼,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속한다고 말한다(계 20:5).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이며, 이들은 하늘 군병이 되고, 이들이 마

귀를 멸망시킨 뒤에 심판 권세를 받아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된다 (계 20:4).

### 3.7 시편 69. 수치와 고난

이 시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손을 빌려 쓰신 것이다. 이 시를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시 69:21)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였고, 사람들은 쓸개를 탄 신 포도주를 해옹에 적셔 예수님께 주었다 (마 27:34, 요 19:29 참고).

예수님은 이 시에서,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였고 (4절, 요 15:25 참고), 형제에게 외인이 되었다고 하셨다 (8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데려가려고 찾아왔으며 (막 3:21),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섭섭하게 여기시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고 화를 내셨다 (막 3:33).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다 (막 3:35).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다 (요 7:5).

### 3.8 시편 109. 대적하는 자를 위한 기도

이 시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손을 빌려 쓰신 것이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거짓으로 그를 치며 (2절), 그의 사랑을 오히려 미움으로 갚으니, 그는 기도 밖에 할 것이 없었다 (4-5절).

예수님은 선을 악으로 갚은 자를 대하여, “그 년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기를 구했다 (8절). 이것은 가롯 유다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가롯 유다는 자살함으로써 수명이 단축되었으며 (마 27:5), 그를 대신하여 맛디아가 12사도에 들어갔다 (행 1:26).

또 그의 무릎이 약하고 육체가 수척한 것은 금식함을 인함이다 (24절).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막 15:25)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마 27:46-50). 이것은 예상 밖으로 짧은 시간이었다 (막 15:44).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하러 오셨기에, 그 시간에 돌아가셔야 했다. 아침 9시와 오후 3시는 양을 바치는 시간이다 (출 29:39).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빨리 돌아가시기 위해 오랫동안 금식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금식으로 인해 시장하시므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나 가서 보셨다 (막 11:13).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을 아시면서도,

섭섭하여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막 11:14).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래 굶주리심으로 인해 예민해지셨기 때문이다. 다음 날 제자들이 보니 그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 (막 11:20).

예수님은 또 오래 굶으셨기에 기운이 없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자주 넘어지셨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마 27:32).

### 3.9 시편 116. 사망에서 건지심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기자는 8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건지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 같은 내용이 16절에도 나타나 있다.

그는 또 15절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하였는데, 이것은 순교자의 귀중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순교자는 장차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다.

### 3.10 시편 118. 부활과 머릿돌

이 시도 기록자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쓰신 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2-23절)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흠으리라”고 하셨다 (마 21:42-44).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17절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 것이다.

### 3.11 시편 139. 탄생과 부활, 승천

이 시도 예수님께서 다윗을 손을 빌려 쓰신 것이다.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시는 특이한 상황을 묘사하신 것이다.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출생의 비밀과 함께, 자신에 대해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sup>(3)</sup> 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주실 것을 믿는 확신을 나타냈고, 18절에서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하여 음부에서 벗어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12 잠 1:20-33 지혜, 신을 부여줌

잠언은 여러 사람의 기록을 담고 있으나 주로 솔로몬이 쓴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혜”를 의인화 하여,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말한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실은 의인화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예언하신 것이다.

---

(3) 이것을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다. 무소부재가 잘못된 견해임은, 바벨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러 직접 오셨으며 (창 11:5),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천사의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오셨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창 18:21).



1장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23절에서는 지혜가,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였다. 신을 부어주는 일은 분명히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신을 부어주셨다 (민 11:17, 사 32:15, 율 2:28).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예수님은 여호와께 구해서 진리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셨을 때 그에게는 일곱 눈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계 5:6)

이 말씀에서 일곱 눈이 일곱 영의 상징임을 알 수 있다. 살피는 역할을 하는 성령을 눈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일곱 영은 예수님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여호와 앞에 있던 것이다 (계 4: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로부터 성령을 받

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다 (행 2: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신을 부어주겠다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존재가 여호와가 아님은 다음 3.12에 제시된 설명에 의해서 알 수 있다.

### 3.13 잠 8:1-9:12 창조와 생명수

잠언의 이 부분도 “지혜”가 말하는 부분이다. 8장 1절에서 지혜가 말을 한다고 하고,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혜”는 여호와가 아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창세전부터 존재했었음을 밝히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창세전부터 존재했었음을 드러내셨다 (요 17:5).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다.

30절에서는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창조 때 여호와와 함께 창조 작업

을 하신 것이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표현이 나온다 (창 1:26). 그러므로 이 “우리”에는 여호와와 함께 예수님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9장에서는 지혜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다 (5-6절).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과 같다 (요 6:56).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라고 하셨다 (마 26:26-28).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실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졌다. 이 샘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영적인 재료다 (슥 13:1). 자세한 것은 3.24의 스가랴서 설명에서 다룬다. 이 물, 곧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죄를 소멸 받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다. 만일 이 권면을 무시하고 “거만하면” 해를 당할 것이다 (잠 9:12).

### 3.14 사 12:1-6 구원의 우물 물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 중 상당수는 예수님에 의해 직접 기록된 것이다.

12장 2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시 118편 14절과 2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것은 그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이 시가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임은 3.9에서 밝혔다.

또 3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  
다

이 “구원의 우물” 물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샘물로, 죄를 씻는 재료다 (눅 13:1).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물로 죄를 씻는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고 (요 6:53),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라”고 하셨다 (요 14:6).

### 3.15 사 21:6-10 타작한 것

이사야서 21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나”는 파수꾼과 여호와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  
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사 21:10)

이 글을 보면, “나”는 “타작한 것”, 곧 “마당의 곡식”에게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사야는 타작하는 자도 아니고 마당의 곡식을 모으는 자도 아니다.

“나”는 누구고, “마당의 곡식”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곡식”과 “열매”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 (마 3:10, 7:20, 13:25, 21:43 등). 열매, 알곡 등으로 불리는 이 존재들은 하늘 군병을 의미한다. 이들은 장차 마귀와 전쟁을 해야 할 존재들이며, 이들과 싸우는 마귀 세력은 바벨론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사 21:9, 계 14:8, 16:19, 18:21). 하늘 군병들을 “나의 타작한 것”으로, 또 “나의 마당의 곡식”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 구절은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다.

### 3.16 사 48:1-19 여호와와 의 신

이사야서 48장 3절에서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여호와 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16절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  
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  
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이사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구절에 보면 “이제”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신과 관련하여 “이제”라는 말을 쓴 경우가 없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 구절에서 “나와 여호와와 의 신”이 함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나”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와 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려 주신 것이다 (눅 4:17-21). 그러므로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며, 이 글을 쓴 존재도 예수님이다.

### 3.17 사 49:1-6 여호와와의 종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여호와께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존재다 (4.22 참조). 그는 예수님이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 결례의 날이 되어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을 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하였다 (눅 2:30-32).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특이하게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나

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이유는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 하심이다 (5절).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은 육적인 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하늘 군병들로, 이들은 여러 민족에서 나온다 (계 5:9). 육적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곧 하늘 군병 144,000을 배출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가나안 전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전쟁을 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으로, 이때 마귀와 싸울 하늘 군대가 바로 144,000명의 하늘 군병들이다. 야곱의 후손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림자다.

아직 이 수가 차지 않았다. 마지막 때 그 남은 수를 채우는 역사, 곧 추수하는 역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계 14:14-16), 마지막 때 그 수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시게 된다 (마 24:31).

### 3.18 사 50:4-11 학자의 혀와 고난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에서, 그리고 27장 30절에서,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하는 장면에서 이루어졌다.

또 4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묘한 대답을 하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냐”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15:2).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유전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비판하셨다 (마 15:6).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다 (마 22:17).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가 될 것이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예수님을 엮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

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의 악한 계책을 파하셨다 (마 22:21).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비판하기 위해서, 차례로 일곱 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가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다 (마 22:28).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 무지함을 알려주셨다 (마 22:30). 또 여호와와는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밝히셨다 (마 22:32).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으셨다 (마 22:42).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으셨다 (마 22:45). 이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없었다.

### 3.19 사 60:1-9 새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사야서 60장에는 누군가 새 예루살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은 예수님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2절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였으므로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또 7절에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나”는 이사야도 아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 만들어지는 성이다. 이 성은 하늘 군병들을 말하며,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5:9-10)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바로 하늘 군병들이다.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을 갖춘 성도들로 묘사되어 있다 (계 21:9-10). 어린 양의 아내는 세마포를 입으며 (계 19:7-8), 세마포 입은 자들은 하늘 군병들이다 (계 19:14).

예수님의 피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바로 이 예루살렘의 머릿돌이라고 말한다 (시 118:22). 계시

록에서는 예수님의 12사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계 21:14)

열왕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사 60:3, 계 21:24).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곧 자신이 기초가 되어 만든 새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 60:7, 슥 6:12-13 참조).

### 3.20 사 61:1-3 기름 부음 받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 구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응하였다고 하셨다 (눅 4:16-21).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한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그에게 임하였다 (마 3:16).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1절). 이것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붙잡힌 인류를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요일 3:8).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곧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마 16:18).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 하셨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계 5:10).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며 (단 8:25, 계 19:16),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시 110:4).

### 3.21 사 61:4-9 여호와의 제사장

앞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사 61:6).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하늘 군병들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5:9-10)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과 땅의 왕으로 삼으신다. 이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 20:6)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킨 후에 심판 권세를 받고 (계 20:4), 심판 후에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아래 구절에서 보듯이, 세세토록 다스리게 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3-5)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다 (계 6:9).

### 3.22 사 61:10-62:12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로 상징화 되어 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사 61:10)

신약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시온에 공의가 나타나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며 (62장 1절), 예루살렘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2절).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기뻐하실 것이다 (5절).

이사야서에서만 해도 신랑, 신부의 관계가 애매하게 나타나 있다. 61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면서 신부처럼 묘사되었다. 또 62장 5절에서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고 신랑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계 19:7-8).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은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당신이 신랑임을 드러내셨고 (마 9:15), 또 천국을 설명하실 때,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마 22:2).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를 하셨다 (마 25:1).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계 19:7-8)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바로 하늘 군병들이다 (계 19:14).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고 한 “기”는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다 (4.18 참조).

### 3.23 사 63:1-6 진노의 포도즙 틀

이사야서 63장에는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붉은 옷을 입은 존재가 나타나 있다. “나”는 노함을 인하여 포도즙 틀, 곧 무리



를 밟았는데, 그들의 선혈이 튀어 옷이 더럽혀졌다 (3절). “나”는 누구인가? 그는 예수님이다.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여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데, 하늘 군대가 그를 따라 나오고 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19:15-16)

백마 탄 존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예수님이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곧 예수님임을 알 수 있다. 위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밟아서 선혈을 땅에 쏟게 하는 전쟁을 하실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때 하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여 마귀 세력과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계 19:19).

### 3.24 속 11:1-17 언약 폐지와 은 30냥

스가라서 11장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잡힐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다 (4절). “나”는 은총과 연락이라는 두 막대로 양떼를 먹이다가 은총이라 불리는 막대기를 잘랐다. 그

것은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는 것이다 (10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을 폐하셨다.

예수님은 또 그의 백성들에게 “내 고가”를 달라고 하였다. 그들은 은 삼십을 주었다 (12절). 예수님은 이 예언처럼 은 삼십냥에 팔리셨다 (마 26:15).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예수님임을 알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였고, “나”는 그 돈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13절). 이것은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져놓고 간 돈으로 대제사장이 토기장의 밭을 삼으로써 이루어졌다 (마 27:7).

### 3.25 속12:10-13:1 생명수 샘물

스가라서 12장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10절에서 갑자기 화자가 바뀐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속 12:10)

위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런데 원어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로 되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마치 장자와 독자를 잃은 것 같이 통곡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가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슥 13:1)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을 샘물을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당연히 알고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하고 기도하셨다 (마 26:39). 그만큼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어려운 것이었다.

## 4.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직접 자신에 대해 예언하신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신 구절들을 살펴본다.

### 4.1 창 22:17-18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창 22:2). 이것은, 5.3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주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다. 여기서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 22:17-18)

이 말씀은 육적인 내용과 영적인 내용을 중의적으로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속이기 위해서, 육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영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위 말씀은, 육적으로는 이삭의 후손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장차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될 것이며,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의 후손들은 144,000명의 하늘 군대를 뜻하며, 장차 마귀를 멸망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위 구절은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 4.2 창 49:10 실로가 오심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에 대해 유언을 남겼다 (창 49 장). 그 중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

위 구절에서 “실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킨 이후에 있을 일이다.

### 4.3 민 24:17 한 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모압의 왕 발락이, 그들이 자신들을 칠까 두려워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예언을 하였다. 그 예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 24:17)

여기서 한 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한 홀은 만왕의 왕인 그의 왕 권세를 뜻한다. 모압은 마귀 군대의 상징으로 쓰였고, 예수님께서 모압을 치신다는 것은 나중에 그가 마귀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다.

#### 4.4 삼상 2:10 메시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조롱을 당했다 (삼상 1:6). 이에 한나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고 사무엘을 낳았다 (삼상 1:11). 아이가 젖을 떼 후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대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그를 하나님께 바쳤다 (삼상 1:28).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예언적인 기도를 하였다. 그 기도 중에 다음 내용이 나온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2:10)

한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은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는 “기름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다. 뿔은 권세를 뜻한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시 2:7-9, 계 2:26-27) 모든 심판 권세를 받으셨으며 (사 11:1-3, 요 5:22),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단 8:25, 계 19:16).

#### 4.5 삼상 2:35 메시아

사무엘이 어렸을 때,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삼상 2:1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해 저주를 전하게 하셨다 (삼상 2:27). 그가 한 예언 중에 다음 내용이 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삼상 2:35)

하나님께서서는 장차 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다. 그 제사장은 여호와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 제사장은, 7.3에서 보듯이, 감람나무를 가리킨다. 이 제사장은 “영원히”,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앞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예언은 장차 예수님과 감람나무가 하늘나라를 다스릴 것을 나타낸 것이다.

#### 4.6 시 8:4 인자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이다. 그 내용 중에,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하였다 (4-5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았다 (2:6-8).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언급하실 때 자주 쓰셨던 표현이다.

#### 4.7 시 34:20 뼈를 보호하심

이 시도 다윗이 쓴 것이다. 그 내용 중에 다음 구절이 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0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3.8 참조). 이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는 아리마대 요셉의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아서 부하를 보내 확인하고 내어주게 하였다 (막 15:44).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죽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내려서 다리를 꺾어 죽게 하였다 (요 19:32).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위 시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다윗이 삼천 년 전에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은 다윗보다 4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다리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다

(출 12:46).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다 (출 12:23).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을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다.

#### 4.8 시 45:7 메시아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쓴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7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았다 (1:9). 이것은 이스라엘 왕과 예수님에 대한 중의적 언급이다. 하나님께서 왕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들도 기름부음을 받았다 (삼상 16:13 참조).

#### 4.9 시 68:18 승천과 구원

이것은 다윗의 시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구절에서 “주”는 예수님이며, 사로잡은 자는 하늘 군병이 될 자들을 뜻한다. “사로잡은 자”는 마귀에게 잡혀서 음부에 갇힌 자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들을 음부에서 구원하여 높은 곳, 곧 하나님의 세계로 오르셨으며 (마 27:53),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는데 (계 6:9),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144,000명의 성도들, 곧 하늘 군병들뿐이다 (계 21:27).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예언이 계시록에도 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3-5)

위 내용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심판이 끝난 이후의 장면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바 된 자들로 (계 5:9-10), 제사장 자격을 가진 순교자들이며 (계 20:4-6),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자들이다 (계 14:1). 이들은 심판 이후에 배출된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들을 음부에서 구원하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들은 무덤(음부)에 있던 성도들인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

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마 27:52-53).

#### 4.10 시 72:11 만왕의 왕

이 시는 솔로몬의 것으로, 11절은 다음과 같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만왕의 섬김을 받게 될 자는 예수님이다. 마귀가 멸망을 받으면 마귀에게 끌려간 모든 영들이 음부에서 나오게 되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심판에서 구원 받은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며, 하늘 군병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리고 모든 왕들은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단 8:25, 계 19:16).

#### 4.11 시 80:17 주의 우편

이 시는 아삽의 것으로, 17절은 다음과 같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시다. 뒤에 4.13에서 시 110편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우편 보좌를 약속하셨다 (1절). 이것은 마귀가 멸망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대신하여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한다 (고전 15:25).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마 26:64. 골 3:1).

위 구절에서 이 시의 기자는 하나님께,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시기를 구했는데,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의 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자주 쓰셨다 (마 8:20, 9:6, 10:23 등).

#### 4.12 시 91:11-12 보호하심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구절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마 4:6).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  
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1-12절)

사람들은 이 시에서 말한 “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도, 마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가리기 위해 비유와 애매한 표현을 쓰셨지만, 마귀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 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3 시편 110. 우편 보좌와 멜기세덱의 제사장

이 시는 다윗이 썼고,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1절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 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으셨고,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그를 “주”로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마 22:45). 그러므로 여기의 “주”가 예수님임을 알 수 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인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날을 의미한다 (3절). 이 백성들은 바로 하늘 군병들이며 거룩한 옷은 세마포를 의미한다 (계 19:14).

여호와께서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4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창 14:18-20).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마 26:26-27).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쓰셨다.

다윗은 그 시대에 제사장이 많아서 24반으로 나누고, 순서대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것을 아론의 반차라고 한다 (대상 24:1). 이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영의 세계에서든 제사장들의 반차가 만들어진다. 영의 제사장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144,000명의 하늘 군병들이다 (계 5:9-10). 이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하는 제사장들이다. 이들도 아론의 반차와 마찬가지로 24반으로 구성된다. 그들의 대표가 바로 24장로다 (계 5:8). 이들은 예수님의 12사도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다 (계 21:12, 14). 예수님은 그들을 주관하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 4.14 사 7:10-16 처녀에게 나심

예수님은 처녀에게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사 7:14)

여기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마”로 젊은 여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처녀도 포함된다. 성경의 예언들은 대개 육적인 내용과 영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중의적으로 주어진다. 이 구절은 이사야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을 것을 나타

내기도 한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지만 이사야의 아내는 처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두 경우를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는 처녀가 아닌, 젊은 여자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한정하여 젊은 여자를 처녀로 번역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현재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길을 여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마귀와 싸울 군병으로 만드시며, 마귀를 멸망시키신 후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다.

#### 4.15 사 9:1-2 갈릴리

이사야서 9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다 (마 4:13-16).



#### 4.16 사 9:6-7 기묘와 다윗의 위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6절)

그런데 이 구절은 잘못 번역된 것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 말이 안 된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과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5절로 분류되어 있다.)

키 엘레드 / 올라드-라누 / 벤 / 니탄-라누

이는 때문이다 한 아기가 /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 한 아들이 /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바트히 / 함미스라 / 알-쉬크모

그리고 있을 것이다 / 정권이 / 그의 어깨 위에

바이크라 / 식모 / 펠레

그리고 불릴 것이다 / 그의 이름은 / 기묘라고

요에쁘 / 엘 기보르 / 아비아드 / 사르-샬롬  
계획한 / 전능하신 하나님 / 영원한 아버지 / 평강의 왕이

“요에쁘”가 분사이기 때문에 “바이크라” 이후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께서 계획하신, “기묘”라고 불릴 것이다.

이 아들은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7절).  
다윗의 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권세로, 장차 만국을 다  
스리실 예수님의 보좌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있  
다 (시 110:1).

#### 4.17 사 11:1-5 이새의 즐기

이새의 즐기에서 한 짝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사 11:1). 이새  
는 다윗의 아버지로, 이 예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에 대한 예언이다 (계 22:16). 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  
여 함께 하실 것이다 (2절). 이 예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마 3:16).

#### 4.18 사 11:10-11:16 만민의 기호

또 이새의 뿌리, 곧 예수님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사 11:10). 여호와께서 그 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실 것이다 (12절).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하늘 군병들이다.

#### 4.19 사 13:2-3 자산 위의 기호

여호와께서 자산 위에 기호, 곧 예수님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 (사 13:2, 11:10 참조).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자들, 여호와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노를 풀게 하실 것이다 (3절). 이들은 장차 마귀를 멸망시킬 하늘 군병들, 곧 여호와의 군대다 (4절).

#### 4.20 사 28:16 기초석

여호와께서 시온, 곧 새 예루살렘에 기초석, 곧 예수님을 두실 것이다 (사 28:16).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을 것이다 (16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돌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셨다 (마 21:44, 시 118:22).

#### 4.21 사 32:1-4. 의의 왕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사 32:1).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망시킨 후에 마귀에게 끌려간 모든 영을 데려와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며, 구원 받은 자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늘 군병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시 72:11, 단 8:25, 계 19:16).

#### 4.22 사 42:1-7 이방의 빛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신을 주실 것이다 (사 42:1, 마 3:16).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조용히 일을 하실 것이다 (2절).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마 8:4), 베드로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며 (마 16:20),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다 (마 17:9).

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것이다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

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했다 (요 8:5).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 (요 8:7-9).

여호와께서는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실 것이다 (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민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 사명이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의 길을 온 인류에게 열어주셨다.

예수님은 또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7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음부에 갇힌 성도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마 27:53).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자들로, 하늘 군병들이다.

#### 4.23 사 49:7-12 멸시를 당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예수님에게,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하셨다 (사 49:7).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이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또 예수님께,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

업으로 상속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8절).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께서 새로 맺으신 언약을 신약이라고 한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할 자들은 바로 하늘 군병들로, 이들은 심판 후에 왕이 되어, 심판을 통해 구원 받은 자들을 다스리게 된다.

여호와께서 또 간혀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9절). 이들은 구약시대에 음부로 끌려갔던 성도들로, 장차 하늘 군병으로서 마귀와 싸우게 될 자들이다.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0절). 이 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샘이다. 이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 4.24 사 49:22-23 여호와와의 기호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그의 기호를 세우실 것이다 (사 49:22). 이 기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을 의미한다 (4.18). 여호와께서 용사(마귀)의 포로를 빼앗고 건져내실 것이다 (사 49:25). 이들은 하늘 군병이 될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음부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마 27:52-53).

#### 4.25 사 52:13-53:12 고난과 죄의 대속

여기에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그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아서 사람들의 흠모를 받지 못한다 (사 53:2).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었다 (마 13:55).

그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3절), 고난을 당하였다 (4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다 (5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6절).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7절, 마 27:12). 그의 시신은 부자의 묘에 안치되었다 (9절, 마 27:60). 그는 속건 제물로 드러진바 되었으며, 이로써 그는 그 씨를 보게 되었다 (10절). 이 씨는 그의 피로 사신 하늘 군병들을 말한다 (계 5:9). 그는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12절, 눅 23:34).

#### 4.26 사 55:1-5 만민의 증거

여호와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아오라고 하신다 (사 55:1). 그리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다 (1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졌다 (습

13:1). 여호와께서는 이 물을 이긴자를 통해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다 (계 21:6-7).

여호와께서 예수님에 대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고 하셨다 (4절). 예수님은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셨다 (요 3:11). 그는 또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써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실 것이다 (계 19:16).

#### 4.27 사 58:12 수보하는 자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에 대해,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고 하셨다. “네게서 날 자들”은 하늘 군병들을 말한다. 이들은 사 53:10에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라고 하신 “씨”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 (마 27:52-53). 무덤은 음부를 의미한다. 구약시대에는 죄로 인해 성도들도 마귀 세계인 음부로 끌려갔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진 후에



그들은 음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음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느냐고 여쭙었을 때, 예수님은 수가 더 필요하니 좀 더 기다리라고 하셨다 (계 6:9-11).

그 수는 144,000이다 (계 14:1). 이들이 마귀를 멸망시킨 후에, 음부로 끌려갔던 모든 영들을 데려와 심판을 한다. 그 결과, 구원 받은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수보”한다고 하는 것이다.

#### 4.28 렘 23:5 의의 왕

여호와께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렘 23:5). 그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심판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 4.29 렘 31:15 통곡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니 이것은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것이다 (렘 31:15).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애곡하는 것은 선

지자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 자식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의 비극의 상징으로 보았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는데 (마 2:16-18), 마태는 과거 예레미야 때 유다의 아이들이 살해될 때 그 어머니들이 애곡한 것을 예수님 때의 예표로 본 것이다.

베들레헴과 라마가 다른 곳이므로 마태의 설명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살해가 일어난 장소로 라마가 언급된 것이 아니다. 단순히 라헬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언급된 것이고, 라헬의 무덤이 라마에 있으므로 라헬이 라마에서 애곡한다고 한 것이다.

#### 4.30 렘 33:15 다윗의 가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렘 33:15). 이 가지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고,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15-16절). 여기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행실로 인해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계 19:8, 21:9-10).

#### 4.31 단 7:9-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다니엘서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온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 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단 7:9-10)

신학자들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의 모습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계 1:14). 그는 심판을 베푸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요 5:22).

그가 여호와가 아닌 것은 다음 구절들로부터 알 수 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3-14)

여기에는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나온다. 흔히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단 7:22)

위 구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는 하늘 군병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이다. 그들을 위해 신원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갇힌 성도들을 구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셨다 (마 27:52-53).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다 (계 5:9).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단 아래”에 있다 (계 6:9). 그 이유는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자들이기 때문이다 (계 5:10). 그들은 순교자들로 (계 6:9), 예수님에게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느냐고 여쭙었다 (계 6:10).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을 주셨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 6:11)

군병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아서 원수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시게 된다 (마 24:31).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키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예수님임을 알 수 있다.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는 감람나무를 뜻한다. 자세한 것은 7.7에서 다룬다.

#### 4.32 단 8:25 만왕의 왕

또 다니엘서에는 짐승과 전쟁을 할 “만왕의 왕”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그가 피를 베풀어 제 손으로 궤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 지리라 (8:25)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은 계시록에도 나타나 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  
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  
다 ( 17:13-14)

짐승은 땅의 임금들의 세력을 모아서 예수님과 싸우러 나온다  
(계 19:19). “그 말 탄 자”는 예수님이고, “그의 군대”는 144,000  
명으로 이루어진 하늘 군대다.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가 잡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20절).

#### 4.33 단 9:24 지극히 거룩한 자

다니엘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  
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  
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을 받으리라 (단 9:24)

“지극히 거룩한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다. 위 예언  
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과 짐승의 관계는 이후에 나  
타나 있다.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단 9:26-27)

위의 “한 왕”이 바로 예수님과 전쟁을 할 짐승이다. 그가 한 이레의 절반, 즉 3일 반에 제사를 금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천 년 후에 영의 세계에서 있을 1,260일에 대한 예언이다 (6.2 참조). 1,260일은 3년 반과 같고, 또 3일 반으로도 예언되어 있다 (계 11:9-11). 이 짐승은 또 “미운 물건”이라고도 불린다.

#### 4.34 단 12:6-7 강물 위에 있는 자

다니엘서에는 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와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에게 대한 특이한 장면이 나온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다  
끝나리라 하더라 (단 12:5-7)

앞으로 보겠지만, “강물 위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은 두 감람나무다. 이 강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강이다 (계 22:1).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예수님임은 다음으로부터 알 수 있다.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강물 위에 있는 자가,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라고 하였다.

이 존재는 마지막 때에 대해 답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모르셨던 내용이다 (마 24:36). 그래서 예수님은 막연하게 제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것으로 말씀하셨다 (마 16:28, 24:34).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으므로, 예수님은 2천 년 동안 오지 못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으셨다 (계 5:7). 이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보실 수 없었던 책이다 (계 5:5). 예수님은 그 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서와 조건을 알게 되셨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강물 위에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대해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극비로 감추어두신 이 내용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신 후에 이들에 대해 알게 되셨고, 두 감람나무를 당신의 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 11:3-5).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언해놓으셨다 (슥 4:11-14).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 짓는 존재로서의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고, 제자들 당대의 재림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임은 7.8에서 설명할 것이다.

#### 4.35 호 11:1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호 11:1).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였다

(마 2:13). 헤롯은 화가 나서 베들레헴의 두 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 (마 2:16).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마 2:20). 요셉은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을 알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다.

#### 4.36 암 8:9 땅이 캄캄함

아모스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8:9-10)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인 12시부터 세 시간 동안 땅이 캄캄하였다 (마 27:45).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된다.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것과 같다. (3.25 참조)

#### 4.37 미 5:2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미가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5:2)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있었다. 그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다 (요 17:5).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고 묻고 다녔다 (마 2:1-2).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미가서를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다 (마 2:6).

#### 4.38 속 3:8 순

스가랴서의 다음 예언은 감람나무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3:8)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감람나무의 상징으로 쓰였다. 자세한 것은 7.5에서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예표의 사람, 곧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고 하신다. 이 “순”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예표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한다. 그 결과, 죄를 소멸할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지고, 예표의 사람들, 곧 하늘 군병들이 배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이다. 여호수아, 곧 감람나무는 그들을 지휘하는, 하늘군대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 4.39 속 3:9 일곱 눈을 가진 돌

스가랴서 3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더 있다.

만군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9절)

여호수아(감람나무)의 동료들이 만들어지려면 일곱 눈을 가진 돌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돌은 예수님이고, 일곱 눈은 여

호와의 일곱 영이다.<sup>(1)</sup> 다음에서 보듯이, 이 영들은 원래 여호와 앞에 있던 것이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 4:5)

일곱 영의 상징은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순금등대의 일곱 등불이다 (출 25:31-40). 등대는 교회의 상징이다 (계 1:20). 교회는 성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늘 군대를 가리킨다. 등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한 장치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도들이 배출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등불, 곧 영들은, 다음에서 보듯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계 5:6)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등장하셨을 때, 그는 그 대가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이것이 일곱 뿔의 의미다. 그리고 그는 또 일곱 눈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을 보내주겠다고

---

(1) 일곱은 완전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성령이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다. 일곱 영이라는 언급 외에 성령은 언제나 단수로 나타나 있다 (창 1:2, 마 1:18, 계 22:17 등).

고 약속하신 바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여호와와의 일곱 영을 받으셨다. 그 장면이 위의 계시록에서 일곱 눈을 가지신 것으로 묘사된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일곱 눈을 가진 돌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돌을 보라고 하시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한다고 하셨다. 여호수아는 그 돌로 인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하는 일을 해야 할 존재다. 이것은 극비사항으로, 그 일을 해야 할 당사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그 일을 해야 할 존재이므로, 스가랴 당대의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예수님의 증인인 두 감람나무의 상징이다 (계 11:3-5). 감람나무 사명이 중차대해서 두 사람으로 정하셨지만, 그 역할을 상징하는 인물은 한 사람으로 알려주셨다. 이것은 스가랴서 4장의 스룹바벨도 마찬가지다. 사실 두 감람나무의 상징인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다. 자세한 것은 3부 감람나무 예언에서 다룬다.

여호수아, 곧 감람나무의 사명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죄든 단번에 제한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죄를 소멸하는 역사를 할 존재로 감람나무를 정해두셨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되셨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나타나면 그를 감람나무로 쓰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겨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 21:6-7).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증인 감람나무가 물을 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셨다 (계 11:6). 이 피는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이다. 즉 감람나무가 예수님의 피를 전해주는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한하는 일을 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 4.40 속 6:12-14 평화의 의논

스가라서 6장에는 예수님과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이 더 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금과 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그 뒤에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하셨다 (9-14 절).

여호수아는 감람나무의 그림자다 (7.5 참조). 그는 장차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 (계 3:21),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존재의 상징이다 (계 2:26-27). 그래서 그에게 상징적으로 금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순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속 6:13). 순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전은 하늘 군대의 상징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영광을 얻는 것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 또 제사장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위한 의논을 하게 된다 (13절). 이 제사장의 상징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래서 그에게 금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신 것이다. 이 제사장은 감람나무를 뜻한다. 예수님과 감람나무는 마귀를 멸망시킴으로써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오는 예언과 같은 것이다 (4.5 참조).

#### 4.41 속 9:9 나귀

스가랴서에는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  
라 (9:9)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다 (마 21:2).

## 5. 예수님과 관련된 상징적 사건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 예언하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신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만드신 상징적 사건들에 대해 살펴본다.

### 5.1 창 17:10 할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하셨다 (창 17:10). 할례를 하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창 17:14). 할례는 남자의 몸에서 피를 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피를 흘림으로써 구원이 가능함을 알려주 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할례의 언약의 의미다.

## 5.2 출 30:10 피로 속죄함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도록 말씀하셨다 (출 30:10).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 9:22).

## 5.3 창 22:2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셨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2)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주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간 모리아 땅의 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그곳의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되셨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올라 가셨다. 솔로몬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했다 (대하 3:1).

## 5.4 출 12:13 유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 집 문 주위에 바르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출 12:13).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정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고전 5:7).

### 5.5 출 12:46 뼈가 꺾이지 않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다 (출 12:46).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뼈가 꺾이지 않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요 19:36).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미리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해두셨다 (시 34:20, 4.7 참조).

### 5.6 레 23:10-11 첫 이삭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을 통해 바치도록 하였고, 제사장은 그 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바치도록 하

셨다 (레 23:10-11).

이 곡식 단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고 (고전 15:20),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 하셨다 (마 28:1).

### 5.7 민 21:9 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많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여러 번 벌을 주셨다.

한 번은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민 21:6). 백성이 모세에게 잘못을 시인함으로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뱀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다.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뱀을 보면 살아났다 (민 21:9).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도 그와 같이 높이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3:14). 이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요 6:54).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 7:38).

사도 요한은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오순절에 사람들이 받은 성령은 뜨거운 불로 왔지, 시원한 물이 아니었다. 예수님 자신도 생수를 주는 존재가 자신이 아님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으신 후에 그 생수를 주는 존재가 감람나무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생수다 (계 2:17). 감람나무는 또 예수님의 피를 전해주는 존재로 예언되어 있다 (계 11:6).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 21:6-7). 그래서 그 혜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유업으로 받은 이긴자를 만나야 받을 수 있다.

## 5.8 단 2:34-35 돌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우상을 본 이야기가 나

온다. 왕은 술객들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하였다 (단 2:6).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의 꿈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단 2:10-11). 그래서 왕은 그들이 다 헛된 자들이라고 말하며 모두 죽이라고 하였다 (단 2:12). 그 말을 전해들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단 2:23), 왕에게 그 내용과 뜻을 알려주었다.

그 꿈 중에, 돌 하나가 나타나 신상을 부수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단 2:34-35).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은 예수님의 왕 권세, 곧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의미한다.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하게 하시기 위해 왕에게 꾸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끝 날에 돌, 곧 예수님께서서 우상, 곧 마귀를 멸망시킬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 3부. 감람나무 예언



6.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
7. 감람나무와 관련된 예언
8. 결론



## 6.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

성경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람나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스가랴서와 계시록뿐이다.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감람나무에 대해 알려주셨지만, 예수님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으셨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 감람나무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알려주셨다.

### 6.1 스가랴서의 예언

스가랴 선지자는 이상 중에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았다 (스 4:2-3).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천사에게 질문을 하였다. 천사는 당시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스가랴는 그 관련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물었다 (스 4:11-12).

그때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14절)

기름 발리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뜻이다. 두 감람나무는 성령을 받고 온 세상의 주, 곧 여호와를 모시고 선 존재다. 그들이 등장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 6.2 계시록의 예언

감람나무라는 하나님의 종이 다시 언급된 것은 계시록 11장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굶은 벼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3-5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셨다 (계 11:3-5). 촛대는 교회, 곧 성도를 의미한다 (계 1:20). 감람나무가 둘이므로,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두 교회, 곧 두 촛대다. 두 교회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을 증거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두 증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1,260일을 예언한다. 지금까지 1,260일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이것을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이 아니고, 예언하는 내용이다.

1,260일은 42달과 같은데, 이것은 짐승이 활약하는 기간이다 (계 13:5). 용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 년 후에 풀려나와서 짐승에게 42달의 권세를 준다 (계 20:7, 13:4, 11:7 참조). 그러므로 42달, 곧 1,260일은 천 년 후에 있을 일을 나타낸다.

마지막 때에 두 감람나무가 하늘군병을 만드는 사명을 완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그들을 데려가시며 (마 24:31), 그 후에 미가엘 천사장이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고 (계 12:7-9, 20:1-3), 천 년이 지나면 풀어준다 (계 20:7). 천 년 동안 하늘군병은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 새 노래는 이들 외에는 배울 수 없다. 이 노래는 하늘군병들이 배울 전쟁 전략을 의미한다. 천 년이 지난 후에 하늘군병은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된다. 이때 무저갱에서 나온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 42달, 곧 1,260일을 일할 권세인 것이다. 두 감람나무는 지상에서 군병을 만들면서, 앞으로 천 년 뒤에 있을, 1,260일에 벌어질 일에 대해 예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1,260일은 날짜로서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3.5라는 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3.5년, 곧 42달, 1,260일로 상징화 된 것이다. 성경에서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3 수의 역사, 곧 생명수 샘물을 만드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4 수의 역사, 곧 지상에서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 4 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존재가 감람나무인 것이다.

성경에 하늘의 수 3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예수님은 30 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3년 동안 일을 하셨으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 세 분의 상징이다.

또 땅의 수 4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으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등이 40년 간 왕위에 있었으며,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노릇한 기간이 4대, 400년이었다.<sup>(1)</sup>

야곱의 아들 12명과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12지파의 12는 3수

---

(1) 하나님의 예정은 400년이었으나 (창 15:13), 실제로는 430년이 걸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 인간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을 보여준다.

와 4수를 곱하여 만들어졌다.

3수와 4수의 역사가 완성되면 둘을 더하여 완전수 7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더하여져서 완전수 7이 만들어지는 일을 가로막는 마귀의 훼방을 3과 4의 중간인 3.5라는 수로 나타내셨다. 이것이 3일 반, 3년 반,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1,260일이나 42달이나 날짜로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귀가 하나님의 군대를 짓밟는 사건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또 당신의 증인, 두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 다 (계 11:6)

그들은 예언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일을 연상시킨다. 엘리야를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예언 이후에 등장할 인물이므로 그 주장은 맞

지 않는다. 오히려 엘리야가 감람나무의 상징인 것이다.

여기서 비는 예수님의 보혈, 곧 생수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감람나무를 통하지 않으면 생수를 주시지 않으신다.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감람나무가 없는 곳에 생수를 주시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또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한다는 것은 모세 때의 일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이 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보혈, 곧 생수를 전해주는 존재다.

감람나무는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재앙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성경을 통해 밝히고 계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추측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를 무시하며,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며 남들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악을 행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감람나무를 통해 그런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 그림자가 바로 모세 때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다.

감람나무는 천 년 뒤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즉 (계 11:7)

여기서 보듯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은 두 감람나무가 증거를 마친 후에 있을 일이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가 42달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1,260일과 같으므로, 이것으로부터도 1,260일이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감람나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계 11:9-10). 그 이유는 감람나무가 자신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10절).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재앙을 말한다 (6절). 그 재앙으로 얼마나 크게 고통을 겪었으면, 천 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감람나무가 죽임 당하는 것을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두려운 것임을 알기 바란다.

죽임을 당한 두 감람나무는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12절).

## 7. 감람나무와 관련된 예언

감람나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성경에는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존재가 예수님과 두 감람나무이므로, 이들을 나타내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성경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상징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이삭이고 (5.3 참조), 감람나무의 상징은 야곱이다.

### 7.1 야곱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만드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야곱은 감람나무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완성해야 하는 감람나무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



고 열매를 거두도록 두 사람으로 역할이 정하여졌지만, 그 상징적 인물은 야곱 한 사람이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 (창 27:30). 그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야곱을 비난한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은 야곱의 의도가 아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뜻이었다 (창 27:10, 13).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었을 때 그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싸웠고, 리브가는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창 25:23).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던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을 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에게, 집에 있는 짐승을 잡게 하여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 축복을 받게 하였다. 리브가의 행동은 현명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기 때문이다 (말 1:2-3).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야곱이 감람나무의 그림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 하란의 삼촌 집에 가서 네 명의 아내를 얻어, 그곳에서 20년을 지내며 그들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으며, 그 후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았으므로, 야곱의 아들은 모두 12명이 되었다.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요단 강의 지류인 압복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건네보낸 후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게 되었다 (창 32:24). 그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에게 자신을 가도록 놓으라고 하였다. 야곱은 축복을 해주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천사는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며 축복을 해주었다 (창 32:28-29).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이긴자, 곧 감람나무의 상징임을 보여주셨다. 사실 인간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야곱이 감람나무의 상징이므로 그에게 이겼다는 칭호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드신 것이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은 감람나무의 사명을 나타낸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곧 144,000 명의 하늘 군대를 상징한

다 (계 7:4-8).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 것처럼, 감람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해야 하는 인물이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존재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 그들이 상징하는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인 144,000을 상징하므로, 이스라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 군대 144,000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회복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지상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마귀와 싸울 하늘 군대의 완성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에 의해 완성된다.

## 7.2 모세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며 수가 늘어나도록 하셨으며, 그 후에 모세를 세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모

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첫 번째가 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출 7:20).

감람나무도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화시킨다 (계 11:6). 그런데 모세는 재앙의 차원에서 물을 피로 변화시켜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감람나무는 물에 피, 곧 예수님의 보혈이 담기게 하여 그 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준다.

모세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감람나무가 마지막 때 이 땅에 내릴 재앙을 상징한다 (계 11:6).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지내게 하셨는데, 이것은 마귀의 종이 된 인류가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상징한다 (눅 4:5-7 참조).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다스리는 지상에서 하늘 군대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것은 장차 감람나무를 통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늘 군병들을 데려가실 것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다. 이것은 장차 하늘 군대가 마귀 군대와 싸울 아마젯돈 전쟁의 그림자다.

### 7.3 사무엘서의 제사장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엘리 제사장 때 그의 두 아들이 불량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 대한 저주를 전하게 하셨다 (4.5 참조). 이때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도 있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삼상 2:35)

여호와께서 세우실 제사장은 기름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된다. 메시아는 예수님을 뜻하고, 그와 함께 영구히 행하는 자는 감람나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인데, 이것은 장차 그가 다스릴 하늘나라를 뜻한다.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를 준행한 후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과 같은 내용이다 (슥 3:7, 7.5 참고).

### 7.4 엘리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세웠다 (왕상 16:31-33,

19:10). 여호와께서는 그 별로 하늘을 닫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셨다.

감람나무도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계 11:6). 그런데 이 비는 육적인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를 통해서만 생명수를 주시며, 그 외의 장소에서는 하늘을 닫아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다.

## 7.5 스가랴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기원전 500년 경, 선지자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스가랴서의 여호수아가 당대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4.37에서 설명했다. 스가랴서 3장의 여호수아는 감람나무의 상징이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 곧 감람나무에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겠다고 하셨다 (스 3:9).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호

수아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할 당사자 외에는 알려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졌다 (속 13:1). 이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사명을 해야 할 존재가 바로 감람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나무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계 11:6).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뜻한다.

따라서 여호수아, 곧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의 동료들이 만들어진다 (속 3:8). 감람나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 순이 먼저 등장해야 한다 (속 3:8). 순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죄를 씻을 영적 재료를 준비해야 여호수아의 동료들이 만들어진다.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바로 하늘 군병들이다.

이렇게 감람나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곧 하늘 군병을 배출하는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속 3:7).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 (계 3:21), 하나

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뜻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선 하늘 군병들, 곧 그의 동료들을 지휘하는 권세를 받아 그들 중에 왕래하게 된다 (스 3:7). 감람나무와 그의 동료들은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된다 (스 3:8). 그 일은 바로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감람나무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죄를 씻어주셔야 한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었다 (스 3:3).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죄를 의미한다 (스 3:4).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시기 전에는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음부로 갔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 곧 음부에서 나왔다 (마 27:53).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여기 여호수아는 스가랴 당대의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감람나무의 상징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내용이 스가랴서에 하나 더 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속 6:12-13)

4.38에서 보았듯이, 위에서 순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신다. 이 전은 새 예루살렘의 상징이다. 이때 한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바로 감람나무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할 일을 의논한다는 뜻이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때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과 감람나무인 것이다.

## 7.6 스가랴서의 총독 스룹바벨

하나님께서서는 또 감람나무의 상징으로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총독 스룹바벨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을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은 감람나무가 둘이기 때문이 아니다.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각각 두 감람나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자들이므로 (계 11:3-5), 예수님 이후의 인물들이다. 그래서 주전 500여 년경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두 감람나무가 아니고, 각각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먼저 스가랴서의 스투바벨이 당대의 유다 총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총독 스투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대신하여 성전을 재건했다. 이 성전을 스투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상징화하여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의 사명을 보여 주셨다.

스투바벨은 산을 평지로 만들고 성전의 기초석을 제공하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하셨다 (스 4:6).

산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투바벨을 통해 보여주신 일은 육적인 성전 건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투바벨이 감람나무의 상징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기름 발린 자, 곧 성령이 함께 하는 자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 4:14).

스투바벨이 내어 놓은 머릿돌은 예수님을 뜻한다 (스 4:7).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의 머릿돌이심을 밝히셨다 (마 21:42).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 곧 십자가 위해서 처형당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머릿

돌로 쓰셨다. 이때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며, 실제로는 144,000명으로 이루어진 어린 양의 아내를 뜻한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서 보여준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계21:9-10).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다.

이 성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지상에 처음 만들도록 하신 것이 바로 모세의 장막이다 (출 25:9).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대상 28:19).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학 1:8).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것은 그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에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다 (계 21:14).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내어놓음으로써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머릿돌이 예수님을 의미하므로, 이 스룹바벨은 스가랴 시대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등장할 인물로, 예수님의 증인인 감람나무임을 알 수 있다.

스룹바벨, 곧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은 성전, 즉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람나무의 사명은 144,000의 하늘 군병의 남은 수를 채워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144,000은 이미 하나님께서 6천 년 전부터 배출해오고 계신다. 그 첫 사람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다 (마 23:35). 그리고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감람나무를 세우심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짓게 하고 계신 것이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산을 평지로 만들었는데, 이 산도 물론 육적인 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성도를 의미하고, 산은 성전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죄를 뜻한다.

같은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가 날 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고 하셨다 (사 41:15). 이 타작 기계가 하는 일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것이다. 무슨 타작 기계가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것도 상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타작 기계는 추수할 때 필요한 도구다. 그러므로 야곱은 추수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 곧 감람나무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가 산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것은 죄를 소멸시키는 권세를 뜻한다. 추수, 곧 하늘 군병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산, 곧 죄를 무너뜨려야하기 때문이다.

스룹바벨, 곧 감람나무의 사명은 바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는 그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게 된다 (슥 4:6). 사람들은 감람나무가 하는 일을 보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

다 (스 4:10). 그가 배출해야 할 하늘 군병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144,000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 배출되어 하나님의 세계에 가 있다 (계 6:9). 그 남은 수를 채우는 것이 감람나무의 사명인 것이다.

그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된다 (스 4:10). 그때 스가랴가 본 순금 등대의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계 4:5),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받으신 일곱 눈으로 상징화 되어 있다 (계 5:6).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온 땅을 살피며 감람나무의 일을 돕는다 (스 4:10).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할 때 다림줄을 가지고 다녔는데, 다림줄은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도구다. 성전이 144,000의 의인을 의미하므로, 이 도구는 성도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 일은 바로 일곱 눈으로 상징화된 성령의 역할이다. 따라서 성령이 감람나무와 함께 하며 하늘 군병의 배출을 돕는 것이다.

감람나무는 그 일을 하면서 금 기름을 순금등대에 전달해준다. 이 금 기름은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 순금 등대로 전해진다 (스 4:12).

순금등대는 교회, 곧 성도들을 의미한다 (계 1:20). 감람나무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금 기름은 예수님의 보혈, 곧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을 의미한다. 이것은 감람나무가 성도들의 죄를 씻

어주고 하늘 군병을 만들어내는 것을 나타낸다.

## 7.7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

구약 성경 중에 감람나무가 직접 언급된 성경은 스가랴서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창세기부터 스가랴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예언들이 감람나무와 관련되어 주어졌다. 다니엘서 7장에는 세 존재가 등장한다. 그들은 “인자 같은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이다. 이미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예수님임을 설명했다 (4.31 참조).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곧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준다고 하였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4).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예수님의 별명으로 쓰이고 있다 (마 9:6).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방불한 권세를 가진 존재를 말한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보셨지만,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자신을 가

리키는 것으로 아셨다 (단 7:13).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셨던 것이다 (마 24:30, 26:64).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곧 예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존재다. 그는 누구인가?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책을 보시기 전에는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예수님은 그 책을 보신 후에 그 존재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 2:26)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와 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같은 권세를 받게 되므로, 이 둘은 같은 인물이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기는 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셨다. 그 이유는 그를 감람나무로 쓰시기 위해서이다.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게 된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일까? 그 내용은 계시록 14장에 나온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 가졌더라 (14절)

다니엘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있다. 그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는데, 이것은 그가 추수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땅에서 곡식이 다 익으면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그에게 추수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게 된다 (계 14:15-16). 다 익은 곡식, 곧 알곡은 하늘 군병을 뜻한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늘 군대를 만들어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그 뜻을 지상에서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인자 같은 이”, 곧 “이기는 자”이다. 그가 추수를 마치면 예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예수님도 같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 (3.1 참조).

## 7.8 다니엘서의 강 좌우의 두 사람

4.34에서 설명했듯이, 다니엘서에는 예수님과 두 감람나무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언이 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강을 보았는데, 그 강물 위에는 “세마포를 입은 자”가 있었고 강 좌우 언덕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단 12:5-6).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에게, 마지막으로 어느 때까지냐고 질문을 했다 (단 12:6). 그러자 세마포 입은 자는 하나님께 맹세하며,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고 알



려주었다 (단 12:7)

세마포 입은 자가 예수님인 것은 이미 4.34에서 설명했다. 강 좌 우의 두 사람이 감람나무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예언 때문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굶은 벼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 11:3-5)

두 감람나무는 1,260일에 대해 예언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하나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1,260일과 같다. 즉 두 사람 중 하나가 1,260일에 대해 답을 받는 것이니,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260일”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같은 것임은 계시록에 나와 있다. 1,260일은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계 12:6), 이것은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다 (계 12:14). 그 기간에 감람나무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계 11:7), 이때 감람나무만 해를 받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짐승과의 싸움에 나가는 어린 양의 아내인 하늘 군병들도 해를 받는다 (계 13:7-8).

이로부터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할 뿐 아니라, 그 사건에서 짐승과 전쟁을 해야 하는 당사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인 것이다.

비록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도, 예수님조차 이것을 알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이어서, 천사도 다니엘에게 감추어두라고 하였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단 12:8-9)

다니엘이 그 이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천사에게 질문을 했지만, 천사는 그에게 그 비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해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해야 할 존재가 감람나무이며, 그가 나타나야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강물 위에 있는 자, 곧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질문하는 자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다 (단 12:6). 그는 둘째 감람나무다. 역사적으로 첫 감람나무는 1,260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첫 감람나무조차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 신학자들이 그 비밀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계시는 강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강이다 (단 12:7, 슥 13:1, 계 22:1). 강 좌우의 두 사람은 바로 이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서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 주는 두 사람의 이긴자, 곧 물을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키는 두 감람나무다 (계 21:6-7, 11:6).

## 7.9 계시록의 이기는 자

앞에서 계시록을 알려주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계시록 내용이 마귀를 잡는 비책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마귀가 알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할 존재는 그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계 2:17).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는 비밀의 책을 받으신 후에 감람나무에 대해 알게 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감람나무에 대해 예언해 놓으셨다 (슥 4:11-14). 계시록은 예수님께서서 두 감람나무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 권

세를 주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계 11:3-5). 예수님께서서는 감람나무로 쓰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셨다. 감람나무가 둘이므로, 이기는 자도 둘이 필요하다.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여덟 가지 언약이 나온다. 그 중 일곱 개는 예수님께서서 주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다.

대개, “이기는 자”를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언약들이 너무나 엄청난기 때문이다. 이긴자는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계 2:26),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시게 된 것처럼, 그도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계 3:21).

만국은 심판 후에 144,000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말하며, 이것이 새 땅이다. 하늘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를 다스림을 의미하며, 이것이 새 하늘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새 하늘로 불리는 하늘나라와 새 땅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사는 천국을 모두 다스리는 막강한 권세를 갖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계 21:1 참조).

천국에 대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으로 오해하지만, 우리말로 천국으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하늘 왕국”으로,

144,000명의 군병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국들을 말한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백성들이 살게 될 곳이다. 하나님은 새 하늘에 계시게 되며, 그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왕들만 들어갈 수 있다 (계 21:24-27).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며 (계 21:22), 이긴자의 보좌도 함께 있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144,000의 왕들 중에 첫 번째가 되어 그 나머지 왕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므로, 그의 권세는 다른 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될 존재가 그저 잘 믿는 많은 신앙인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긴자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씩 살펴보자.

## 생명나무의 과일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7)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 곧 에덴동산에 있는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생명과일을 먹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쫓

아내셨다 (창 3:22). 그러므로 죄인은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과일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생명과일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의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것과 같다. 죄가 있으면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인류 최초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된다. 이긴자 이전에는 지상에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순교자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죄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죄가 씻긴다고 생각한다. 12사도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은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나눠줄 존재가 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 알려주셨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 전에 순교를 당하였으므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2천 년 동안 누구에게도 직접 생수를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긴자가 나오면 그를 먼저 씻어주시고 그를 통해 생수를 전해주게 되어 있다 (계 21:6-7). 이진 기독교의 혁명이다. 누구든 죄 씻음을 받기 원한다면 이긴자를 찾아와야 한다.

## 둘째 사망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2:11)

둘째 사망은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한다 (계 21:8). 그러므로 이긴자는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이긴자는 심판할 자, 즉 하늘 군병들을 만드는 존재다. 대부분 순교자들로 이루어진 하늘 군병들은 마귀를 멸망시킨 후에 심판 권세를 받게 된다 (계 20:4). 그러므로 이긴자는 둘째 사망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위의 새 이름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 2:17).

이 언약에서, 이긴자는 두 가지를 약속받았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6:49-51, 53).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신 후 그 제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죄를 씻을 생명수를 마셔야 함을 가리킨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요일 3:8),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롬 5:12). 따라서 죄를 씻을 생명수를 받지 못하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세상을 떠날 때 마귀에게 끌려가 음부로 가게 되며 (계 6:8), 마귀 멸망 후에 음부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계 20:13). 따라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지 못한 자는 마귀와 싸울 군병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이루신 “감추었던 만나”를 이긴자에게 약속하셨다. 따라서 이긴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보혈, 곧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 죄 씻음을 받는 자가 된다.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순교자들 중 군병의 자격을 갖춘 자들만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러나 이긴자가 나타나면 그를 통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지상에서 직접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은 “흰 돌”을 주신다는 것으로,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있고, 그 내용은 받는 자만 아는 비밀이다. 흰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마 21:42).

예수님은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 있다고 하셨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계 3:12 참조), 이것은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계 19:12-13).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알게 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그 이름, 곧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사명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늘 군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기는 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면 다음에 나오는 구절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그가 사명을 완수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26-29)

이긴자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것이다 (시 2:7-9). 만국은 창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심판 후에 144,000 군대의 왕국에서 살게 되므로, 이긴자가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그가 144,000의 왕국을 지배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즉, 144,000명의 왕들이 그의 수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주신다는 새벽 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계 22:16). 이것은 이긴자가 하늘 군병을 배출하기 위해 추수하는 역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실 것을 의미한다.

## 여호와 알현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흰 옷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를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 인사시키겠다고 약

속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5-6)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주시는 흰 옷은 세마포를 의미한다. 세마포는 하늘 군병들이 입는 옷이다 (계 19:14). 이긴자도 하늘 군병이 되므로 세마포를 입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긴자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한다.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일반 “생명책”, 두 가지가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하늘 군병들이 기록되고, 일반 “생명책”에는 심판 때 구원 받을 자들이 기록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144,000명으로, 이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며, 장차 마귀 군대와 싸워야 한다 (계 13:7-8, 19:7-8, 19-21, 20:7-10). 그리고 전쟁 후에 심판 권세를 받으며, 심판 후에 구원 받은 자들, 곧 일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심판 때 왕들마다 생명책을 한 권씩 받으므로, 생명책은 144,000권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한 권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된다 (계 21:9-10, 27).

예수님께서 이긴자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흐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이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던 책으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와 기념책”으로 불렸다 (말 3:16). 모세도 자신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의 이름을 그 책에서 지우겠다고 하셨다 (출 32:32-33). 예수님께서 이긴자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의 죄를 씻어주신 후에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또 이긴자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인사를 시키게 된다. 그곳에는 천사장들인 네 생물이 있다 (계 4:6).

## 하나님 성전의 기둥

예수님은 이긴자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의 위에 세 가지를 기록하겠다고 하셨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

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2-13)

예수님은 이긴자를 성전 기둥으로 삼으신다. 이것은 이긴자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 첫째는 하나님  
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섭리다. 이긴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 해야 할 사명을 받는다.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  
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계 21:9-10). 어린 양의 아내  
는 하늘 군병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긴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하늘 군병의  
자격을 갖춘 자들의 명단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하늘 군병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추수하는 사명을 의미  
한다 (계 14:14-16).

셋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 곧 예수님께서 새로 알게 되신 하나  
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알게 되신 하나  
님의 뜻을 시행하시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 계획을 이긴자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이다.

##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21-22)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긴자에게도 장차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긴자는 장차 천국 백성들로 이루어진 144,000개의 왕국을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긴자는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할 엄청난 인물이다. 그는 감람나무다.

## 생명수 샘물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6-7)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계 22:1).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해주신다.

### 7.10 계시록의 인 치는 자

감람나무의 사명과 관련하여 인을 치는 역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

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7:1-3)

여기 네 천사는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바람은 전쟁을 의미한다. 네 천사가 선 땅 네 모퉁이는 4대강국을 의미한다. 이것은 감람나무가 등장할 때 그 주변에 형성될 4대강국에 대한 예언이다. 마귀는 네 나라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마칠 때까지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한다. 그런데 그 천사는 혼자인데도,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말할 때, “우리”가 인치기까지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천사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들은 인을 가진 천사와 감람나무다.

인치는 천사가 누구에게 인을 치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을 칠 리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인 치는 천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서 하늘군병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인을 치는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가? 바로 감



람나무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이긴자는 감람나무의 사명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당신의 새 이름, 곧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겠다고 하셨다(계 2:17).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는 그 이긴자밖에 없다. 그를 통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 중에 하늘 군병으로서의 자격을 이룬 자는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성전 기둥의 역할을 하는 이긴자에게 알려지게 되고(계 3:12), 인침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와 이긴자, 즉 감람나무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이한 낮으로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는 역사다(계 14:14-16).

### 7.11 계시록의 인자 같은 이

4.32와 7.7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감람나무다. 그는 구름 위에 앉아서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 낫을 들고 있다(계 14:14). 금 면류관은 그가 이긴자임을 보여준다. 낫은 추수하는 그의 사명을 의미한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곧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알게 된 후,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배출된 하늘 군병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며, 낮으로 거둠을 받게 된다.

곡식이 다 익으면,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 인자 같은 이에게 알린다(계 14:15). 이 천사는 성전에서 곡식이 익는지 살핀다. 다시 말하면 알곡이 되는 자, 곧 하늘 군병을 배출하는 일은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인자 같은 이는, 이 성전에서 곡식이 익는 것을 확인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낮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게 된다.

## 8. 결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가리며 6천 년 동안 역사를 해오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비밀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핵심은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망시킬 하늘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6천 년 전에 가인과 아벨을 택하심으로 인류와의 교류를 시작하셨고,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2천 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방에 복음과 빛을 전하는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감람나무를 세우심으로 남은 하늘 군병을 배출하여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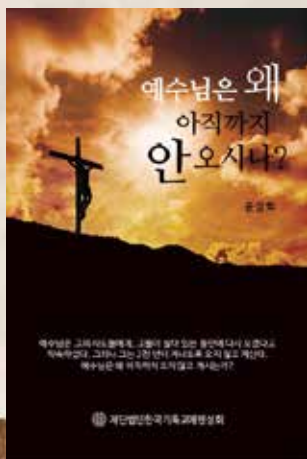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과 감람나무다. 그 그림자가 이삭과 야곱이고,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인자 같은 이”다. 이긴자, 곧 감람나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자이고 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될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감람나무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정말 많은 예언을 남기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 곧 감람나무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나눠주게 하고 계신다. 그 샘물을 마시면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군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늘 군병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 때 죄가 없는 존재로 심판을 받게 되어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 심판의 기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이다. 죄가 없다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세우시고 지상의 역사를 마무리 하고 계시는 때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긴자, 감람나무에게 나아와 생수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제2감람나무 역사에 관한 자료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ieden.kr>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는 2천 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계신다. 예수님은 왜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 그 책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늘 군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책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셨으며,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은 지상에서 하늘 군병을 배출하여, 하늘 군대를 완성하고, 그들을 통해 마귀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상에서 마지막 때에 군대를 완성할 역사를 예정하셨으며, 그 역사를 할 사명자가 바로 감람나무다.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http://www.ieden.kr/kr/jesusdown/>